



아시아리뷰

제15권 제1호(통권 33호), 2025

근현대 북한의 도시경관과 시각예술

서문: 근현대 북한의 도시경관과 시각예술

김백영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아시아연구소 동북아시아센터장

북한의 수도이자 동시에 대표적 역사도시인 평양을 소개하는 전혀 다른 시대에 쓰여진, 전혀 다른 성격을 띤 두 개의 발췌 글로부터 이 글을 시작하고자 한다.

당요(唐堯) 무진년에 신인(神人)이 박달나무 아래에 내려오니, 나라 사람들이 그를 임금으로 삼아 평양에 도읍하고 이름을 단군(檀君)이라 하였으니 이것이 전조선(前朝鮮)이요, 주나라 무왕(武王)이 상나라를 이기고 기자(箕子)를 이 땅에 봉하였으니 이것이 후조선(後朝鮮)이며, 그의 41대손 준(準) 때에 이르러 연나라 사람 위만(衛滿)이 망명하여 무리 천여 명을 모아 와서 준의 땅을 빼앗아 왕검성(王儉城)에 도읍하니 이것이 위만조선(衛滿朝鮮)이었다(『세종실록(世宗實錄)』 지리지 평안도 평양부).

금수산태양궁전 방향에는 정중성의 원칙에서 건축물을 높지 않으면서도 보기 좋고 아담하게 건설하였으며 룡흥네거리의 영생탑 방향에는 상징성의 원칙에서 초고층건물들을 집중적으로 배치함으로써 웅장화려한 건축군이 형성되었다(『로동신문』, 2017년 1월 26일자).

전자는 16세기 중엽에 발간된 『세종실록』 지리지에 실린 평양의 역사를 설명하는 글이고, 후자는 2017년 1월 『로동신문』에 실린 글로서, 평양 여명거리의 70층 초고층 살림집 건설 현장을 방문한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 내용이다. 앞의 글이 평양이 오래전부터 조선 상고사의 시원적 공간이자 유구한 민족사의 중심지로서 독보적 위상을 지닌 곳이었음을 보여준다면, 뒤의 글은 현대 북한의 사

회주의 도시경관 연출전략에서 변함없이 최고의 전시 무대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평양의 특권적 지위를 보여준다. 북한에서 평양은 역사적 고도(古都)이자 특권적 수도이며, ‘민족 기원의 성역(聖域)’이자 ‘사회주의 혁명의 심장’으로서, 예나 지금이나 특출난 장소성을 지닌 특별한 도시공간인 것이다.

이미 수많은 선행연구에서 다루어져 왔듯이 오늘날 평양의 도시공간은 여러 차례의 역사적 변화과정을 거쳐 형성되었다. 6세기에 고구려의 수도가 된 이래 평양은 줄곧 한반도 북부의 거점도시로서 확고한 지위를 점해왔다. 조선시대에는 대동강을 중심으로 전개된 대내외 무역을 통해 상업도시로서 발전했지만, 1897년 남포항이 개방되기 전까지 평양의 기본적인 도시구조는 거의 변하지 않았다. 개항 이후 일제 식민통치기를 거치면서 평양은 북선(北鮮) 공업화의 거점지로 개발되면서 근대도시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했다. 한국전쟁기 미군의 폭격으로 인해 평양은 도시 전체가 초토화되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로 인해 전후 백지상태에서 ‘이상적인 사회주의 도시’로 재건될 수 있었다. 1967년 북한의 유일사상 체계가 확립된 이후에는 주체사상이 반영된 ‘주체건축’ 양식이 도입되어 평양의 경관은 또 한번 면모를 일신하게 된다. 김정일이 김일성의 후계자로 등장한 1980년대에는 인민대학습당(1982), 만수대의사당(1984) 등 기념비적 건축물이 들어섰으며,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에도 평양에는 고층 살림집이 건설되는 등 특권적 혜택을 누렸다. 김정은이 집권한 이후로는 기념비적 건축물보다는 ‘인민’을 내세운 건축물이 많이 들어섰다. 여기에는 2012년 창전거리에 지어진 45층 초고층아파트, 2013년 조성된 은하과학자거리와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 2014년의 위성과학자주택지구, 2015년 평양 중구역의 미래과학자거리, 2017년 완공된 려명거리 초고층아파트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이처럼 평양의 도시경관은 장구한 역사지리적 변화가 축적된 독특한 지역성을 띤 공간 위에, 근대 이후 식민화와 전쟁, 그리고 전후 몇 차례에 걸쳐 전개된 ‘극장국가’의 연출전략에 따라 조성된 전시적 건조환경과 상징건축이 결합된 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 이 특집기획은 이처럼 독보적 위상과 독특한 형성사를 지닌 평양의 도시공간을 주된 대상으로 삼아, 북한 특유의 사회주의 도시경관이 어떻게 연출되어 왔으며, 그러한 경관이 시각예술 작품을 통해 어떻게 재현되어 왔는지 살펴보고자 하는 문제의식의 산물이다. 근대 이후 현재까지 평양을 중

심으로 한 북한의 도시공간은 한편으로는 혁명이념을 내세운 지배세력 주도하에 정치적·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장이자 동시에 예술적·문화적 감성이 발현되고 발전하는 공간이었다. 특히 한국미술사의 시각에서 본다면, 분단과 전쟁 이전 평양은 한국의 근대예술이 시작되고 공명하는 곳이었으며, 분단 이후에는 사회주의 미술이 태동하고 발전해온 독특한 장소였다고 볼 수 있다. 근대 이래 ‘도시’와 ‘예술’은 어느 사회에서건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이 점에서는 북한도 예외일 수 없다.

지금까지 북한 도시학과 예술사에서 북한의 도시와 미술에 대한 연구는 각각의 영역에서 활발히 전개되어 왔으나 그 성과를 공유하고 한자리에서 논의하는 데는 많지 않았다. 북한의 도시연구는 주로 통치전략 차원에서 국토계획, 지역개발, 도시계획, 주요 건축물 등 개별 도시의 물리적·공간적 특성과 도시사회의 외형적·양적 속성에 대한 현상적 분석 위주의 연구가 주종을 이루어왔다. 북한의 예술 연구에서도 사회주의 예술사상, 월북작가, 조선화와 선전화 등 미술과 정치의 관련성 및 미술의 장르적 특성에 집중하여 논의가 전개되어 왔다. 김정은 집권기에 접어들면서 북한의 공식적 통치담론에서 ‘도시문화’에 대한 강조가 대대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에 비춰볼 때, 의식·정서적 차원의 재현 공간으로서 북한의 ‘도시성’에 대한 연구는 학술과 정책 양 측면 모두에서 긴요한 과제로 요구되고 있다. 본 특집기획은 북한의 ‘도시성’을 구명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도시와 예술의 관련성에 중점을 두고 도시학과 예술사에서 축적된 선행연구 성과를 적극적으로 공유함으로써 북한 도시성에 대한 융합적 논의의 확장성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첫 번째 글인 조민주의 논문(“‘장소사랑(Topophilia)’의 관점에서 바라본 근대 평양의 대동강 풍경: 풍경화와 사진을 중심으로”)은 근대기 예술가들의 작품 속에 평양과 대동강의 모습이 어떻게 재현되었는지 살펴본 것이다. 당시 평양의 대동강, 연광정, 모란봉, 을밀대 등 평양의 명소들은 국제적 명승지일 뿐만 아니라 예술적 영감의 원천이었다. 평양은 김관호, 김찬영, 길진섭, 박영선 등 초창기 한국 서양화의 흐름을 주도한 화가들의 활동무대였으며, 서순삼, 정도선, 김진수 등과 같이 ‘예술 사진’ 장르를 개척한 사진작가들의 작품활동의 장이기도 했다. 이 글에서는 특

히 대동강의 풍경에서 예술의 소재와 영감을 얻은 김관호와 삭성회 출신 화가들과 작품에 주목하여 평양 미술이 전체 근대 미술의 조류 속에서 지역성과 보편성을 형성해 가는 과정을 분석하고 있다.

이어서 신수경의 논문(“민족미술에 대한 열망: 『조선미술』 엮서집으로 본 1960년대 북한미술”)은 1950년대 전후 복구 시기를 지배했던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경향과 차별화된 1960년대 북한 미술에서 새롭게 나타난 민족미술에 대한 열망의 표출 양상에 대해 살펴본다. 해방 직후 북한은 소련미술의 영향을 받아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를 지향했으나, 195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 흐루쇼프의 스탈린 격하운동의 영향을 받아 민족적 형식, 특히 조선화의 전통 계승 방향에 대한 치열한 논쟁이 전개되었다. 이러한 논쟁은 1966년 김일성이 「우리의 미술을 민족적 형식에 사회주의적 내용을 담은 미술로 발전시키자」는 담화문 발표로 일단락되어, 이후 소련의 영향에서 벗어나 주체성을 강조한 북한식 민족미술이 나타났다. 이 글은 이 시기 북한미술을 대표하는 조선화 8점과 유화 1점, 도합 9점의 작품이 한 세트의 구성된 『조선미술』 엮서집에 실린 작품의 주제와 작가를 분석하고 있다. 엮서집은 한국전쟁, 천리마 운동, 풍경화, 아동교육과 교양, 서클활동 등 다양한 주제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1950년대 엮서화들이 흑백도판으로 전후 복구 시기 평양의 재건된 모습을 담았던 것과 달리 1960년대 제작한 이 엮서화는 천연색으로 북한미술의 특징이 잘 드러나는 조선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노현종의 논문(“사회주의적 사실주의 미술의 분화: 동독, 베트남, 북한 미술의 ‘장’ 비교를 중심으로”)은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의 보편적 미술 노선이 개별 사회주의 국가의 미술 ‘장’ 및 정치·사회적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변용되어 나타나는지를 동독, 베트남, 북한 세 나라 사례의 국제비교를 통해 살펴본다. 동독은 근대적 시민사회의 유산과 예술가의 독립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 덕분에 미술의 ‘장’이 지닌 독자성이 일정 수준 용인되어 모더니즘 미술과 체제의 어두운 면을 조명하는 작업도 부분적으로 허용되었다. 베트남의 경우, 식민지 시절 현대화된 래커화를 매개로 사회주의적 사실주의가 발전했는데, 이로 인해 작가 개인의 감정을 다양한 색채와 구상으로 표현할 수 있었다. 통일 이후 미술 ‘장’의 독자성이 일정 정도 확보되어 큐비즘과 초현실주의를 포함한 다양한 화풍이 허용되었

지만, 체제의 어두운 면은 조명할 수 없었으며 주로 당의 노선과 일상생활을 주제로 삼았다. 그에 비해 북한에서는 식민지 시절의 모더니즘과 인상주의의 유산은 일부 남아 있었으나 독립적인 미술 ‘장’으로는 발전하지 못했다. 조선화로의 전환 과정에서 표현적 논의는 있었으나 정치로부터 독립적인 예술은 허용되지 않았다. 김정은 시대에는 다양한 표현기법이 허용되고 산업미술이 강조되고 있지만, 여전히 모든 예술은 당과 국가와 연결되어 있으며, 독립적인 미술의 ‘장’은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저자의 결론이다.

마지막으로 황진태의 논문(“대동강부유와 한강부의 탄생: 평양·서울의 수변주거단지와 옥망적 시선 형성에 관한 비교도시론적 해석”)은 김정은 집권 이후 평양의 대동강변에 건설된 미래과학자거리를 중심으로 한 수변주거에서 맹아적으로 나타나는 대동강부 담론이 서울의 한강부 담론과 어떤 유사성과 차이를 띠는지를 살펴본다. 2010년대 중반 한강변에 고급 고층 아파트가 건설되면서 한강부 담론이 본격적으로 확산되었다. 한강부는 한강이라는 서울의 대표 자연경관을 거주공간에서 누릴 수 있는 특권적 지위를 함축하며, 한강부 용어의 사회적 확산은 한강부를 누리고 싶은 대중의 욕망을 가리킨다. 이 연구는 비교도시론의 관점에서 사회주의 사회인 북한에서도 자본주의 사회인 한국과 유사한 대중적 인식과 욕망이 존재하는지를 북한의 문헌자료에 대한 징후적 독해를 통해 밝혀내고자 한다.

이상 네 편의 논문을 통해 이 특집에서는 평양을 구체적 사례로 하여 북한의 도시경관과 시각예술의 상관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법을 모색하고 있다. 대동강이 관통하고 있는 평양이라는 도시공간은 한강이 관통하고 있는 서울과 마찬가지로 한 국가의 정치적 상징공간인 동시에 북한 주민의 일상적 욕망과 감성이 투영되는 정서적 공간이다. 이 일련의 연구가 북한의 도시공간이 지닌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의미를 상기시키고 북한의 도시경관과 시각예술이 맺는 역사적 관계의 역동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